

# ‘부영CC 자문단’ 다음주 출범...사업변경안 주목

### 나주시, 금명간 11명 인선 할 듯 ‘특혜 자문단’ 논란 불식할지 관심 ‘아파트 규모 최소화’ 요구 반영도

나주시가 이르면 다음 주에 ‘부영 골프장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 자문위원 모집에 나섰다. 자문단이 무리한 토지용도 변경과 그로 인한 전문학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해 논란을 겪고 있는 부영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하고, 공익과 사익을 적정선에서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 공개, 나주시 등의 부적절한 개입 금지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이번 주까지 ‘부영CC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을 위해 자문위원 추천을 접수한다. 자문단은 시의원·시민단체·언론 각 2명과 전문가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10월 21일 나주시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자문단 구성 계획과 함께 운영 계획도 설명한 바 있다. 일단 나주시 단계에서의 적정 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도 자문단 운영 기간을 확인했다. 자문단과 함께 부영주택 측 사업변경안 등을

검토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사업자 측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자문단이 구성되면 이달 중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2차 회의부터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대 부지 기부 후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건설 규모, 학교·체육시설·녹지 등 공공기여 정도 등을 안건으로 자문단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문단 내부, 자문단과 나주시, 자문단과 지역 시민사회 간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 등 1년 이상 ‘부영 특

혜 반대’ 운동에 중심에 선 단체들은 “자문단은 면피용 꼼수다”며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개발이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의 사업변경안은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공식 입장과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의견을 정리해 최근 사업자 측에 통지하며, 조차계획(사업변경안)을 요구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우려를 알고 있으며 자문단뿐 아니라 향후 부영 측이 제시할 사업 변경안을 두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전남도, 12월말까지 단속

전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배추, 고춧가루, 찹쌀, 전일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단속반으로 꾸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국 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등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매년 40여 건의 무신고 영업 등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도민도 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 사의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남재 수석이 2주 전부터 사의를 표명했다”며 “후임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당분간 비워둘 것이고, 좋은 분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가 말했다”면서도 “조만간 구성될 민주당 광주시 대선 선대본부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수석은 시의회와 시민사회, 언론 등 외부와의 소통업무 등을 비롯해 당시 공석이었던 광주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수석(국회·정부 등 담당) 기능까지 도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등 ‘1인 2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자치21 운영위원,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위원, 전남도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간공원 조성 전시회 참석한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전시회에 참석,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여수, 남해안시대 선도 핵심 산업도시로”

#### 김영록 지사, 여수서 도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여수시를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수 문화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 인프라와 공항, 항만, 철도, 3대 SOC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국가 균형 발전 및 남해안 시대를 선도할 핵심산업도시”라며 “여수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 울진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산단에 오는 2023년까지 1조2013억원을 투입,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으로 개조한다. 또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촉매개발 테스트베드, 소재부품 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관 일원의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경관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전라좌수영성은 역사적 가치 증대 및 시민의 문화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길 찾기 통합안내 시스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해 도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여수지역 주민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섬 자원 활용 관광지원 개발, 섬발전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비 조속 집행하라”

#### 김한중 도의장, 질병청에 촉구

전남도의회 김한중(더불어민주당·장성2) 의장은 16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관련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라”고 질병관리청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이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올해 예산 44억 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남도민과 장성군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자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된 관련 연구 용역이 올해 10월에야 마무리되면서 시설비가 지연됐다”며 “용역 결과당초 49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900억 원으로, 인력은 200명대에서 500명대로, 사업 부지는 1만 3500㎡에서 3만 8000㎡ 규모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사업비와 부지·인력 등 센터 규모를 키우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증액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넣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질병청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트라우마센터 진실화해위와 업무협약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와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진상 트라우마센터장과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한 신청인, 참고인 등 조사 관계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치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설립된 국내 첫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심리적·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민 광주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실규명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지난 1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 대상자 발굴과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